

# 미취학 아동 세심한 보호 필요

교육당국이 제작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영아의 쌍둥이 형제가 허위 출생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뒤늦게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적발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세심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전남 영암 모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수사를 의뢰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쌍둥이는 A(28·여)씨의 허위 신고에 따른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5일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고 서울 한 구청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브로커 2명은 A씨가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인우보증증을 썼다.

인우보증이란 병원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 입양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지난 2016년 폐지됐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아이를 한국인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출국시켜주려고 거짓 출생신고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아이를(쌍둥이인 것처럼 속여) 데리고 베트남에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구축·활용중인 e아동행동지원시스템은 미취학 아동 860만 여명의 건강검진·예방접종·양육수당 신청 여부 등 41가지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분기별로 위험 아동군 2만 여명을 선정해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각 지자체와 양육 환경을 확인 중이다.

병원 진료·검진과 양육수당 수령 기록이 없었는데도 쌍둥이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동지원시스템상 위험 아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사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위험에 처한 다른 아동이 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등 행정정보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미취학 아동들에 대

## 2012년 11월 거짓 출생신고, 6년 지나 확인 복지부 아동행동지원시스템서도 적발 누락 '아동범죄 예방책 실효성 갖춰 관리 강화될'

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관련 범죄 예방과 복지 혜택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고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폐해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제가 폐지돼 허위 출생신고할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출생 미신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 정보에 등록되

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학대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기 방문 서비스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된 쌍둥이 건은 고위험군에서 밀려나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된 것으로 본다"며 "시스템 보완에 주력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꽃망울 터뜨린 거제 춘당매(春堂梅)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인근 옛 구조라 초등학교 교정에서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경찰, 사이버성폭력·도박 초토화 돌입...인력 대폭 늘려

경찰이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200명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도박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사이버 수사대 28명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 91명 ▲사이버 도박 단속 30명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에 43명을 배치하는 등 모두 192명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없는 블라인드 웹캠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구축한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 전원(91명)을 정식 직제화하고, 일명 '웹캠 카르텔'을 완전히 붕괴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웹캠 카르텔 방지 대책'에서도 웹캠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도박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등 7개 주요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전담팀을 기반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이달부터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때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이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 전문 분석관도 증원했다.

뉴스스

## 필리핀 남부 폭탄 테러로 최소 19명 사망

필리핀 남부 줄로섬의 한 성당에서 27일 미사 중 폭탄 2개가 폭발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했다고 오스카 알바데데 필리핀 경찰청장이 밝혔다.

아바데데 청장은 이날 폭발이 줄로 섬당을 겨냥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관계자들은 1차 폭발이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 외곽에서 먼저 발생한 후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성당 바로 앞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줄로섬은 오래 전부터 아부사야프 이슬람 무장반군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 왔다. 아부사야프는 폭탄 공격과 납치, 참수 등을 일삼아 미국과 필리핀 정부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명돼 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브라질 댐붕괴 사고 사망자 40명으로 증가

브라질 남동부 브루마디뉴 지역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발생한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전히 최소 300명이 실종 상태이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25일 시신들이 계속 발견돼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비가 내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만 수색이 계속될 수록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사망자와 실종자 등 피해자들은 댐을 관리하는 베일(Vale)사 직원들과 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빌라 페르테코 마을 주민들이다. 브루마디뉴 지역의 다른 마을들로도 광산 폐기물들이 흘러들었지만 다른 마을 주민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베일사에는 약 300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약 100명만이 생존이 확인됐다.

미나스제라이스주의 로메우 제마 주지사는 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발 때 상파울루지는 25일 브라질 광산회사 베일이 관리해온 이 댐이 지난해 12월 "위험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확장 공사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 보존 단체들은 이러한 승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나스제라이스주 소방 당국은 이날 40구의 시신이 발견된 외에 23명이 생존한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노심조사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 수록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 美 전직 교사, IS 지지 혐의로 기소

미국의 한 전직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지지한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여류됐던 미국인 전직 대체 교사가 IS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워렌 크리스토퍼 클락(34·남)으로 알려졌으며 텍사스 출신으로, 이날 텍사스 휴스턴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에서 시리아민주군(SDF)에 체포돼 이번 주 미국 당국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이미 클락의 IS 지지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이슬람 극단주의 연구원들은 클락이 IS 앞으로 보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입수했다.

## 美항공기 기내서 승무원 심장마비로 사망

미국 하와이인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비행 중에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전남 호놀룰루를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자사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객기는 뉴욕으로 가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로 선회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의료진이 비행 중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해당 승무원은 착륙 전 사망했다.

이륙 5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했고, 탑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돌아왔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율치료 중인 민력어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